

# 팔도의 산수와 명승·전설, 고지도와 함께 담기다

“무릇 산수란 심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다. 사는 곳에 그런 산수가 없으면 사람은 거처가 없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변변치 않은 곳이 많다. 사람이 이상 자라처럼 제 등껍질을 이고 살거나 지렁이처럼 흙을 파먹고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산수만을 취하여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라리 기쁨진 땅과 넓은 들이 있어 지리가 좋은 곳을 선택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10리 밖이나 반나절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우나 산과 물을 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가서 시름을 풀거나 하루 이를 묵고 돌아오는 것이 낫다. 이야말로 훗날까지 이어갈 만한 좋은 방법이다.”



## 완역 정보 택리지

이중환 지음, 안대희 외 옮김

과 안대희 교수가 200여종의 이본 중 선본 23종을 추려 정본 텍스트를 확정하고 뒤 번역을 했다. ‘완역 정보 택리지’는 잘못 통용돼온 구성과 편제를 원본에 맞게 고치고 내용의 오류 또한 바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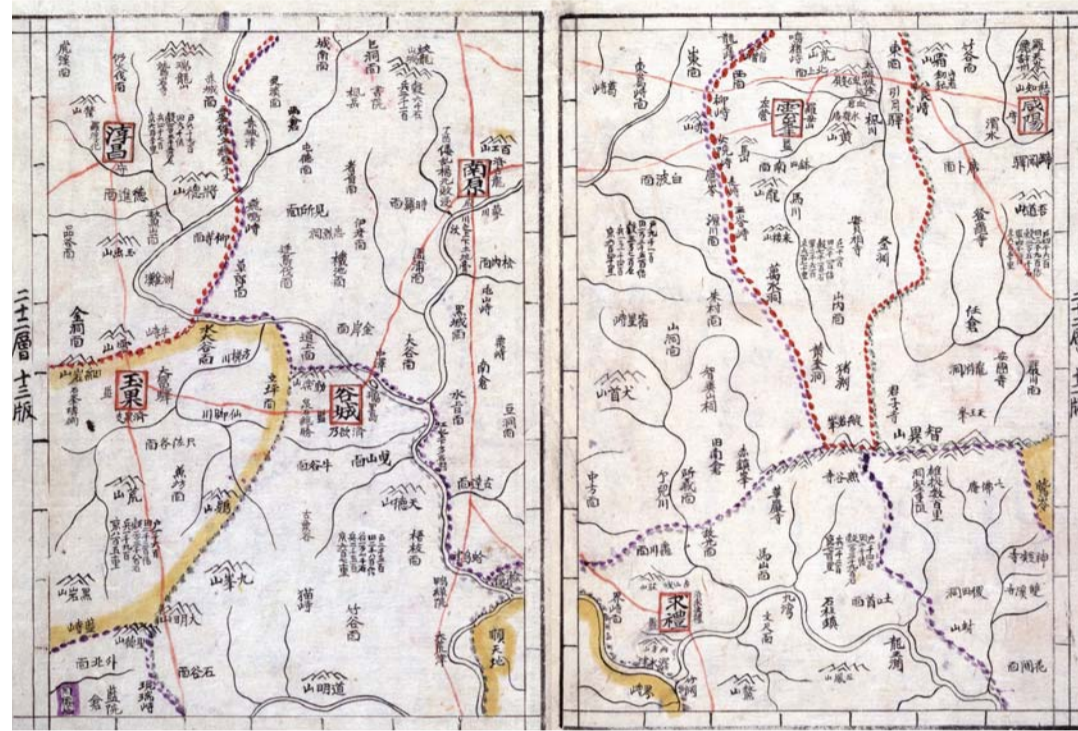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택리지’는 수많은 이본이 전해질 만큼 인기와 가치가 입증된 지리서다. 많이 읽히고 필사돼왔지만 정작 정보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읽고 있는 ‘택리지’는 1912년 최남선이 번역한 광문화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수많은 이본 중 하나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첨가한 탓에 일정 부분 애곡이 가해진 텍스트였다.

이번 ‘완역정보 택리지’가 기존의 ‘택리지’와 다른 점은 편목과 구성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번역문과 논문에서는 사민총론, 팔도총론, 북

조선시대 인문지리학의 명저 ‘택리지’, 정본으로 탄생

“생계 유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최적의 주거지”

잘못 통용 돼 온 구성·편제 원본 맞게 고치고 오류 바로잡아



19세기 구례 일대, '청구요람' (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거총론, 총론, 저자 발문의 편목과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완역 정보는 원본 의도에 맞게 서론, 팔도론, 북거론, 결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문’에는 발굴한 자료를 엄선해 수록했다. 홍중인, 정약용, 정인보 등이 쓴 글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정인보가 국한문혼용체로 쓴 것은 ‘택리지

의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손색이 없다. 정인보는 “이제 굳이 멀리 사마천이나 역도원의 저술과 장점을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선의 지리서로도 고금에 이보다 훌륭한 저술은 없음을 사실이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완역 정보에는 ‘함흥차사’ 관련 글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실지 않았다.

본론은 ‘팔도론’과 ‘북거론’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자에서는 전국 팔도의 현황을 두루 짚고, 후자에서는 ‘지리·생리·인심·산수’ 등 네 가지 요소로 ‘살 만한 곳’을 조망한다. 또한 단순한 지리를 넘어 지역의 물산이나 경제활동 현황 등도 다룬다. 여기에 산과 강, 누정과 명소, 문화유적 등도 소개해 산수유람 안내서로서의 기능까지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중환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최적의 주거지로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생계 이상의 부동산 투기 등은 결코 사대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던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한 걸음 나아가 재산을 축적하여 후손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고자 한 것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조건이라도 당시에는 거의 적용하기 불가능했다. 사대부는 이익을 말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양장본 3만5000원·보급판 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역력

소설가인 박성천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최민우 지음 '점선의 영역'

2012년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활발한 창작을 해온 최민우 소설가의 첫 번째 장편이 출간됐다.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하고 2012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EBS라디오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첫 소설집 ‘머리검은토끼와 그밖의 이야기들’을 통해 독특한 상상력과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번에 펴낸 ‘점선의 영역’은 지난 2017년 1월 ‘문학’ 창간과 함께 웹진의 첫 연재작으로 독자와 만난 작품이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날 법하게 친근한 인물과 가독성 있는 문체를 활용하면서 환상적이고 미스터리한 요소를 적재적소에 가미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학적 성찰도 담았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의 할아버지 예언으로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언젠가부터 계시를 받는 듯한 표정으로 일기장들의 불길한 미래를 예언했다. 그 말들은 예외없이 실현됐는데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 ‘나’에게 유언을 남긴다. 이 유언 역시 현실이 될 것인가. 소설의 초반부터 흥미와 자극을 준다.

작은 규모의 비밀스러운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근무하는 ‘나’는 심수번의 취업 시도 끝에 겨우 얻은 직장에 근무하는 평범한 남성이다. 연인 ‘서진’의 취업준비를 도우며 무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나’에게 운명의 변곡점 같은 사건들이 이어진다. 차갑고 각박한 현실을 맞닥뜨린 한 청년의 분노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다는 흥미로운 설정이 작가의 건조한 문장과 결합돼 독특한 서사를 견인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정곤·최경봉 지음 '한글과 과학문명'

‘언문(諺文)’이라는 속칭이 의미하듯 한글은 과연 사대부중이 아닌 부녀자나 상민들만 쓰던 문자였을까. 그러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시대 전 계층에서 통용되던 문자가 다름 아닌 한글이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떻게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확산되고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과학문명사적 흐름에서 한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모색한 책이 발간됐다. 시정곤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와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펴낸 ‘한글과 과학문명’은 과학문명사적 맥락을 토대로 한글의 제자 원리에 내포된 과학주의를 들여다본다. 또한 한글의 보급 확산이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과학문명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고찰한다.

사실 문명의 시작은 문자의 탄생에 뜻한다. 문자의 탄생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고 문자와 더불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한글은 한자문화권의 철학을 바탕으로 문자이자, 한자와의 조화와 한자문화의 수용을 염두에 둔 문자이면서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던 문자의 장단점을 분석, 수렴해 우리말을 표기하는 소리문자로 창제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어리석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먼저 지배계층이 훈민정음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배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민정음을 통해 교화를 했을까? 성종 때 간행된 ‘경국대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삼강행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이해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들녘·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현준 지음 '쉽게 읽는 젠더 이야기'

“남자라면 핑크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웃는 것은 남자와 핑크색은 호응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남자는 ‘남자다운 파랑색’, 여자는 ‘여성스러운 핑크색’이 잘 어울리고 그것이 성(性)에 알맞다고 생각한다.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진 것일까?

조현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지은 ‘쉽게 읽는 젠더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젠더 입문서다. 남자와 여자, 이성애와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을 위해 젠더란 무엇이고, 그 젠더로 구축된 젠더 이분법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 등을 쉽게 설명해 준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니쉬 칼’, ‘캐롤’, ‘발리 엘리엇’ 같은 젠더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들을 글의 소재로 삼았다.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해 게이 루빈, 에너매리 야고스 등 현재 가장 유력한 젠더 이론가들의 주요 이론도 설명했다.

남자와 여자,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애와 동성애처럼 딱딱이러는 이분법적 사고는 ‘퀴어’(Queer)들을 배제한다. 완고한 젠더 이분법을 허물 무기는 ‘젠더 감수성’이다. 젠더 감수성은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강자와 약자의 권력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지은이는 익숙하고 당연시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젠더 감수성이 시작되고 말한다. 여자와 남자, 동성애와 이성애는 확실히 구분된다는 이원론을 해체한다면 우리는 서로 달라도 ‘인간’이라는 토대 위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행성B·1만3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